



“귀농 할까? 도시농업 할까?”

“아빠, 방울토마토도! 옥수수도!” 서울의 한 대형서점에서 서울 마포구에 거주 중인 김모(44세) 씨와 두 아이들은 ‘원예·농업’ 코너에서 한참을 발 땀 지었다. 서울 토박이라는 김 씨는 올해 초 지역 단체에서 운영하는 도시농부 과정을 신청했다. 집 앞 텃밭을 한번 일궈보고 싶다는 생각에서다. 김 씨는 “농사는 나와 관계없다고 평생 살았는데 삭막한 도심에서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취미를 찾다가 텃밭 가꾸기에 관심을 가지게 됐다”며 “농사에 대해 아이들과 의견을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도 나누게 됐고 가족 단결도 되는 것 같아 앞으로가 더 기대된다”고 말했다.

최근 사회가 만들어놓은 기준이 아닌 스스로 만든 가치에 따라 능동적으로 삶을 사는 이들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전원이나 자연 속에서 그 가치를 구현하려는 공통된 모습을 보인다. 도시 속에서 전원 속 모습을 추구하는 도시인의 모습을 담아냈다.

◆우리는 어쩌다 아파트밖에 모르게 됐을까
요즘 아이들에게 집을 표현해보라고 하면 아마도 사각형 집 안에 사각형 방이 모여있는 아파트 구조를 그리지 않을까? 이유는 간단하다. 그런 곳에서밖에 살아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 사람 대부분이 아파트에 거주한다. 국토교통부 조사결과 2014년 기준 아파트 거주 비율은 주택 전체의 49.6%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다세대와 오피스텔 가구는 증가하지만 단독주택이나 연립주택 가구는 매년 감소하고 있다. 아파트 공화국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정도다.

하지만 이러한 편중된 주거 문화는 많은 부작용을 낳았다. 한국도시연구소에서 1999년 발간한 ‘개발이념과 거품도시’에 따르면 아파트 문화는 빈부 격차를 확대하고 계층간 위화감을 증폭시켰다고 지적한다. ‘돈이 돈을 낳는 것’을 목격한 시민들이 아파트를 투기의 대상으로 바라보게 만든 것이다. 그리고 대국민적 부동산 열풍은 하우스푸어house poor를 대량 발생시켜 지금까지도 해결하기 어려운 사회문제가 됐다.

뿐만 아니라 공동체 의식 상실도 야기했다. 아파트를 ‘살 집’이 아닌 ‘팔 집’으로 보다보니 당연히 공동체 의식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 거주민 간의 갈등도 야기한다. 특히 재건축재개발 지역의 임대주택 비율 의무화로 한 아파트 단지 내에 일반 분양과 임대와 함께 혼합되면서 이러한 갈등은 더 심화되고 있다. 실제로 몇 해전 서울 성북구 한 아파트 주민들이 아파트 내 일반가구와 임대가구를 구분짓는 높은 담장을 설치해 사회적 파장이 일어났다. 또한 지난 2014년 서울 강남 자곡동 한 아파트 단지에서는 일반 분양가구와 임대가구가 관리비 수납 문제로 갈등을 겪다가 결국 따로 내기로 결정하는 웃지 못할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러한 비극적 촛국은 지금도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현실이다.

◆왜 똑같이 살아야 하죠?
최근 아파트 위주의 주거문화에 대한 인식 변화 바람이 거세다. 다양한 주거에 대한 요구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변화 원인으로 아파트 등 부동산 투자 움직임이 주춤해진 점이 꼽힌다.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침체로 아파트 매매 및 거래가 둔화되고 있어 투기적 수요가 감소되고 있

는 추세다. 실제로 지난 2006년 최고치를 기록했던 부동산(건축물) 거래량은 연간 전체 거래량이 조금씩 하락하고 있다. 여기에 아파트 분양시장 장기 침체에 따라 단독주택 건설 증가도 아파트에 대한 투자량 하락을 돕고 있다.

한편에서는 주거에 대한 인식변화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아파트에서 자라난 세대들이 외로움과 고독, 인간성 상실의 원인을 주거에서도 찾기 시작했다. 가온건축 임형남·노은주 대표는 지난 2013년 SBS 라디오 팟캐스트에서 “부동산 침체기가 오히려 집에 대한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 마련에 힘을 보탤다”며 “그러면서 살아가는 사람의 이야기가 담긴 집에 대한 젊은 층의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새로운 주거방식이 시도되고 있다. ‘아파트=도시화’라는 현대 건축 도식은 자연을 주거의 요소에서 없애버렸다. ‘아파트 문화’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자연’을 다시 찾는 것은 그래서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바꾸고 싶다고? 그럼 자연 속으로!
주거에 대한 인식 변화는 자연에의 회귀로 이어지고 있다. ‘아파트=도시화’라는 현대 건축 도식은 자연을 주거의 요소에서 없애버렸다. ‘아파트 문화’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자연’을 다시 찾는 것은 그래서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귀농·귀촌_자연을 생활 속에서 가장 잘 접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아파트에서 벗어나 전원주택에서 거주하는 것이다. 최근 전원주택 혹은 단독주택을 짓고 사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기존 은퇴자들이 선택하는 거주 형태라고 인식돼 왔던 과거와 달리 최근 20~30대 젊은 세대의 전원생활에 대한 요구가 높다. 한 건축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전원·단독주택 의뢰자의 20~30%가 젊은 세대”라며 “자연 속에서 살 수 있는 주택에 대한 선호가 모든 세대로 퍼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 귀농·귀촌 인구 수도 매년 늘어나고 있다. 2013년 3월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귀농귀촌은 1만1220가구(1만9657명)로 2011년 가구수 대비 11.4%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20~30대 젊은 층의 귀농·귀촌하는 수는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귀농귀촌종합센터 관계자는 “센터 설립 초창기 보다 확실히 젊은 세대 귀농이 늘어나고 있다”며 “도시에서만 살아본 세대라 시골 생활 적응이 어려울 거라 생각하기 쉬운데 농촌사회에 적극 유입해 적응을 잘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주말농장_농어촌으로의 이주가 힘든 사람들에게 주말농장을 활용하기도 한다. 현재 지자체 차원 혹은 개인이 운영 중인 수백 곳의 주말농장이 운영 중이다. 대부분 도심지에서 가까운 근교나 시외곽 부분에 위치하는데 농작물을 직접 재배하며 삶의 질을 높이고자하는 도시민에게

안성맞춤이다. 실제로 시민들의 반응도 대부분 긍정적이다. 농촌진흥청이 서울·경기·양평지역의 주말농장에 참여한 시민 24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 정서적 만족감(치유 등) 등이 최고의 성과 중 하나로 꼽혔다. 최근에는 도시 한 가운데 빌딩 옥상, 찜뚝리마을을 활용한 농장도 인기를 얻고 있다. 굳이 먼 곳까지 농사지으러 가지 않고 자신의 집 주변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 아파트 등 도심에 자리한 텃밭은 지난해 850ha(헥타르)로 5년 사이 8배 이상 늘었고, 참여자도 130만 명을 넘겼다. 땅이 없는 경우에는 배란다에서 식물을 재배하기도 한다.

◆도시농부_최근에는 이들을 위한 도시농부 교육도 실시되고 있다. 지자체와 시민단체 등에서 주로 실시되고 있는 도시농부 교육 프로그램은 공지가 뜨기 무섭게 신청이 마감될 정도로 인기가 높다. 한 예로 서울시가 농협중앙회와 공동으로 운영하는 1일 농촌체험 프로그램 ‘도시가족 주말농부’는 인기 높은 프로그램 중 하나다. 프로그램에 대한 시민 관심은 폭발적이다. 서울시는 기존 4월~10월까지 운영하던 것을 11월까지 확대하고 참여인원도 지난해보다 늘리며 수요에 대응하고 있다. 이밖에도 도시양봉, 정원 가꾸기 등 자연 속 다양한 생활을 즐기는 이들은 매년 늘어나고 있다.

김수진 기자 neunga@

◆NATURAL 풀팁 정보, 여기 여기!
도시민들이 가장 궁금해할 만한 도시농업·귀농귀촌 등의 정보를 담고 있는 사이트를 소개한다. 알아두면 좋을 풀팁이니 한번 접속해보자.

- 귀농귀촌종합센터
농림축산식품부가 도시민들이 보다 쉽게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만든 센터다. 온·오프라인 시스템을 모두 갖춰 방문 혹은 전화, 온라인 등을 통한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귀농설계컨설팅, 1대1 맞춤형 귀농다터 연계 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여기에 현장사례 중심의 귀농·귀촌 아카데미 교육도 실시하고 있어 유용하다. 또 귀농창업 및 주택구입, 체류형농업창업지원, 도시민농촌유치지원사업 등의 서비스와 세제지원 정보도 얻을 수 있다. 지역별 작목정보, 농촌주택표준설계도, 빈집정보 등 귀농귀촌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가 알차게 구성돼 있다.
- 어반비즈서울
도시 한복판에서 벌을 키워 꿀을 채밀하겠다는 생각은 누가 처음 해냈을까? 놀랍다 못해 신기하기까지 한 도시양봉은 이미 도쿄, 뉴욕 등에서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핫’한 도시농업 프로그램 중 하나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생소하지만 알 사람은 다 아는 트렌디한 농업인 셈.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어반비즈서울URVAN BEES SEOUL에서 진행되는 도시양봉 프로그램을 추천한다. 서울시내 도심지에 지정된 양봉장 8곳에서 운영되는 어반비즈서울에서는 도시양봉가 교육과정(2개월)을 운영 중이며 노숙자 도시양봉가 육성, 수원시와 제휴한 도시양봉가 프로그램 등을 다양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도시양봉에 필요한 물품도 구입가능하다.